

이재명 “대전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에너지·AI·교통인프라 등 광주·전남 6대 공약 발표 “정세균, 정권 재창출·민주정권 지도자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사진)는 13일 “대전환 위기를 광주·전남의 발전과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25·26일) 경선을 앞두고 호남권 맞춤형 공약을 제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승부수로 읽힌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은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라며 “광주의 진실을 모르고 살아온 소년공 출신 이재명을 역사에 눈뜨게 하고 일생을 약자를 위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셨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6대 공약으로 ▲에너지 전환산업 ▲광주형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문화·해양·생태 관광산업 ▲스마트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공공보건의료 ▲교통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안과 여수의 해상풍력발전 조성과 나주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을 약속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공언했다.

광주형일자리로 만든 생산 인프라를 AI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자동



이 후보는 이날 정세균 후보 사퇴에 대해 “정치인 이재명을 만든 것이 정세균 후보이다”며 “2008년 당 대표로 모셨고, 2010년 공천으로 성남시장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이 자리까지 왔다. 감사하게 생

각하고,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하는 정치 선배이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중심을 잡고, 정권 재창출에 핵심적인 역할과 민주정부의 지도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은 꼭 지켰다. 6대 공약을 실천해 광주와 전남을 더 활기차고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민주당 제4기 정부를 우뚝 세우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2021 인권작품 공모전 내달 15일까지 동영상·포스터

전남도는 인권의 가치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1 전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인권의 땅 전남,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 존중과 인권의 가치 알리기’라는 주제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인권 관련 동영상(애니메이션 포함),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역,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로 응모할 수 있다. 포스터 분야는 일반부와 아동·청소년부로 나눠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도 누리집의 공모문을 참조해 전자우편(syhya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당정회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서 승리 자신”

반도체 비메모리 미래도시 건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사진)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것은 예측했다”며 “(자신이) 최종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당에서 광주·전남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언론인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홍준표·유승민의 싸움이다”며 “두 후보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은 누가 후보가 되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으나,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후보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지를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호남 전략에 대해서는 “우선 광주·전남 시도민은 저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며 “대구와 광주는 그동안 정치에서 극단적



인 선택을 했고 제일 어렵지만 대구·광주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고속도로와 달빛내륙철도가 시작을 했다”며 “저는 대구와 광주 중간쯤에 50조원을 선투자해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지역주민과 정치인을 설득한 뒤 부지를 확보하면 고속도로, 철도가 놓여지고 인구가 늘면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된다”고 전했다. /황애란 기자

박용진 “광주·전남에 미래전략신산업벨트 구축”

“호남 경선,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예비후보(사진)는 13일 “광주·전남에 미래전략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광주·전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바이미믹스 대통령이 되겠다”며 “광주·전남에 바이미믹스 경제권을 만들어 호남에 그랜드비전을 안겨 드리겠다”고 밝혔다. ‘바이미믹스’는 바이오헬스, 2·3차 전지, 미래차, 6G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박 후보는 “에너지·미래차·AI특화 산

단을 만들어 국가 미래산업 삼각지대로 조성하겠다”며 “회순 바이오백신 산업특구, 여수·순천·광양의 5G 스마트산업단지, 고흥에 6G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하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흑산공항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미믹스 각 산업이 유기적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연결하겠다”며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광주 1호선의 화순 연장, 달빛내륙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사업, 무안공항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호남경선 전략에 대해 “호남 경선은 1, 2위간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고, 민주당 전체 경선의 판세 결정할 것이다”며 “20대 대선 전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 경선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호남 민심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며 “박용진은 중도확장성이 크고, 민주당, 한국정치, 대한민국 미래 담아낼 정치인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이 지지를 보내 주면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후보는 윤석열 고발사추진에 대해 “국힘과 윤석열 후보가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얕은 수이며 없어져야 할 썩은 정치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을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대선 주자,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이개호, 실외정원 3곳 유치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 지역구에 실외정원 3곳이 조성되고 국립정원문화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등 산림보전,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생활밀착형숲 조성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치유공간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성사업에는 ▲영광 승마장 ▲함평 천지종합복지관 ▲장성 황룡강 천변



등 세 곳이 실외정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각각 5억 원(국비50%)씩이 투입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광·함평·장성 지역이 정원문화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